

# 광주·전남 요양병원 '1등급' 10곳 중 1곳 그쳐

## 건보심평원, 2023년 적정성 평가

광주·전남 지역 요양병원 126곳중 16곳이 인력 배치, 진료 적정성 등이 뛰어난 '1등급' 요양병원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5차(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23년 하반기(7~12월) 입원진료를 기준으로 전국 요양병원 1325곳을 대상으로 의사 1인당 환자수 등 인력배치 적정성, 장기입원 환자분율, 통증 개선 환자분율 등을 지표로 평가한 결과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를 매겨 각 요양병원을 1~5등급으로 분류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 병원을 가리킨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54곳 중 8곳이 1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자연·다음·대한·산돌·동행·광주연세·치유·첨단 요양병원 등이 선정됐다. 이 중 광주연세·동행·산돌·첨단·치유 요양병원 5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목포더좋은·목포재활·보궁·순천만·전남제일·즐거움·화순군립·화순케어랜드 요양병원 등 전체 72곳 중 8곳(11.1%)이 1등급에 선정됐

## 광주 54곳 중 8곳...광주연세 요양병원 등 5곳 '2년 연속' 1등급 전남 72개 중 8곳... '고흥군공립노인전문' 등 24곳 4·5등급 그쳐

다. 2년 연속 선정된 곳은 목포재활·보궁 요양병원이다.

인력부족과 진료 질 저하가 심각한 곳도 있었다. 전남은 72곳 중 15곳(20.8%)은 4등급, 9곳(12.5%)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요양병원 세 곳 중 한 곳은 질적 수준이 낮은 요양기관으로 분류된 셈이다.

전남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병원은 고흥군공립 노인전문·공립무안군노인전문·나주광주·백담의료재단 한울·보성군립·의료법인보듬의료재단 봄빛·재단법인여수·진도군노인전문 요양병원 등이다.

4등급은 광양시공립노인전문·보성·순천생협·순천정원·아름다운·여수강남·여수시립·영암효·은혜·의료법인세화의료재단 나주효사랑·의료법인송지 의료재단 장흥·의료법인행림의료재단 새미소·인에·탐·현송요양병원 등이었다.

광주 지역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평가 대상 54개 요양병원 중 4등급 7곳(12.9%), 5등급 4곳(7.4%)이었다.

5등급으로 분류된 병원은 광주시립·그린·씨티재활의학과·태평 요양병원 등이다. 4등급 판정을 받

은 병원은 광주양지·국모닝·백운·양명·엄마·에스엘·광주보훈 요양병원 등이다.

5등급을 받은 요양병원들의 경우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비율이 높고, 욕창 치료를 통한 개선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DL 개선 환자 비율이 낮았으며,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 비율은 평균 40.5%로 높아, 병원 내 치료 기능보다는 장기 수용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평원은 종합점수 상위 30% 이내 병원(378곳)과, 4등급 이상이면서 직전 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5점 이상 향상된 병원(178곳), 총 556곳에 대해 '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위 5% 기관 48곳은 인력 가산과 추가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병원평가통합포털, 모바일 앱 '건강e음', '병원평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보훈요양병원 '4등급' ...보훈자 운다

### 광주보훈요양병원 개원 2년만에 '불명예' 욕창 치료·일상생활수행능력 득점 등 낮아

광주보훈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9일 발표한 '2주기 5차(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의료기관임에도 개원한 지 2년도 안 돼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평원의 평가는 구조적 평가 지표(의사·간호사·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와 약사 재직이수율), 과정 평가지표(유치노환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결과 평가지표(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지역사회 복귀율 등)를 종합한 결과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우수한 요양병원이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광주보훈요양병원은 신체영역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이 전체평균 39.9%에 한참 못 미치는 18.8%로 나타났다. 질환영역에서는 당뇨병 환자 중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실시한 비율(당화 혈색소 환자분율)도 많지 않

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은 17.1%(전체평균 51%),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은 54.4%(전체평균 40.5%)였다.

의식불명 등으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유치노환이 있는 환자분율은 28.2%(전체평균 2.7%)로 나타났다.

다만 결과값이 낮을 수록 우수한 항목인 구조부문 인력영역에서는 의사 1인당 환자수(명)가 26.9%(전체평균 28.7%), 간호사 1인당 환자수(명)는 5.1%(9.4%),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명)는 3.6%(전체평균 4.0%)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보훈요양병원은 지난 2022년 7월 40병상이 개원했고 현재 120병상이 운영 중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 주요항목 욕창치료를 일상생활 복귀율 득점이 낮아 4등급을 받았다. 현재 요양병원 외과 욕창 전문의를 초빙하고 욕창 전문간호사 교육을 이수해 개선했다"며 "개원한지 얼마되지 않아 2023년 평가가 미흡했지만 현재는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



함께 더위 식히자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19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쿨링포그가 시원한 수증기를 뿜어 내며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이 울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다.

환경부와 공단은 17일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기존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395곳)과 산사태 취약 지역(429곳), 지난 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주왕산·지리산 쪽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하기로 했다.

특히 국립공원 사무소장이 판단하기에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탐방로 통제 시엔 입구에 설치된 재해 문자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출입을 막는 난간을 설치하는 한편 안내 인력도 배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250곳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입수 방지 그물망과 안전로프, 구명환 등 안전 시설·장구도 촘촘히 배치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도 실시한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 144곳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피계획도 수립했다. 공단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한다.

/연합뉴스

## 전남, 10년간 '호우특보' 전국 2위

419차례 ... 피해액만 2701억 최장 2020년 1982억 '최대' 연 평균 집중호우 34.2일 극한호우 빈도 꾸준히 늘어

전남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우특보가 발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발간한 'JNI 인포그래픽' '올 여름 안전한 전남'을 통해 최근 10년 간 전남의 집중호우 추이와 피해액, 과거 홍수 피해 지역, 재해 예방 대책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기상정보개발포털과 국민재난안전포털 통계로 집계한 10년(2014~2023년) 간 전남지역 호우특보 발효횟수는 419회로, 섬진 제주(551회)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원은 367회로 세 번째였다.

호우로 인한 전남 피해액은 10년 간 2701억원

에 달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역대 최장 기간 집중호우가 내렸던 2020년(1982억원·전체 피해의 73.4%) 피해가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하천의 분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담양(506억 원), 구례(419억 원), 곡성(295억 원) 등의 피해가 많았다.

전남의 연평균 집중호우 일수는 14.4일(1980년대)에서 34.2일(2020년대)로 급격히 늘었고 극한호우(시간당 72mm 이상) 빈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39억원을 투입해 재난취약지구 128곳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마을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침수·산사태 위험 지역 사전 예찰, 고령자·장애인 대피 지원 등을 시행한다.

전남연구원 유인상 부연구위원은 "최근 집중호우 증가 양상과 기존 대규모 홍수 피해 사례를 감안, 재해취약지역과 홍수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농업지역, 사회기반시설,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등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